

濟州道 觀光資源의 活性化 方案

徐 庚 林

I

本道는 그 規模 및 景觀的인 側面에서 世界의 有數한 觀光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各種의 有形·無形의 觀光對象物이 到處에 散在하고 있다고 하는 意見에는 別로 異意를 提起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觀光活動을 보면, 거의가 「보는」 觀光을 爲主로 하고 있고, 그것도 極히 單調로운 루우트를 통하여 劃一的인 案內로 始終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濟州觀光旅行社의 定期(每日) 觀光案內書를 보면, 1박 2일 코오스로서, 濟州市와 萬丈窟의 往復, 5·16道路를 거쳐 西歸~中文~山房山~挾才~濟州市에 이르는 單調로운 코오스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濟州觀光旅行社만이 아니라 다른 旅行社의 案內書를 보아도 거의 같다. 더우기 問題가 되는 것은 이러한 千篇一律的인 案內는 이미 10年前에도 指摘된 적이 있으나 그동안 10年 사이에 아무런 變化 없이 反復되고 있는 것이다.¹⁾ 그리하여 橫斷道路와 一周道路를 통하여 自然的 觀光資源만을 觀覽시키고 있고, 그 方法 역시 多樣性和 變化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各 觀光資源, 예컨대 有料觀光地인 天池淵·正房瀑布·山房窟寺 등에 있는 賣票所, 기타 土產品店이 觀光對象과 너무 近接하고 있어, 資源이 지닌 價値를 돋보이게 하기는 커녕, 오히려 低下시키고 있다. 이러한 施設物들은 하나같이 都市建物の 平凡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自然과 전혀 調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施設物에는 「濟州島」的인 個性 또는 特性은 아무것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最近에 大大的으로 行政當局에서 推進하였던 지방改良이 시골 霧圍氣에 걸맞지 않고 있으며, 그 色感 역시 濟州의 特有的 自然에 適合하지 못하고 있다.

觀光資源의 開發은 결국 그 資源이 갖고 있는 獨特한 個性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그 「이미지」를 더욱 確然히 나타내는 데에 一次의인 目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濟州道의 觀光開發, 특히 資源의 開發은 이러한 目的에는 전혀 副應하지 못하고 있다는 點을 指摘하지 않을

1) 當時는 道務署濟州에 濟州行에서 東쪽으로는 案內가 기피되어 있고 西쪽으로만 觀光案內를 한다 고하는 것이 問題되어 있었다. 濟州道誌 第30號 p. 111 參照

2 는 문 집

수 없다. 이러한渦中 속에서濟州島가 지닌固有한 것들은 하나씩 자취를 감추고, 또한觀光資源의魅力性은 차차退色되고 있다는 데에 더욱 큰問題가 있다.

觀光客을誘引하는要素로서觀光資源의多樣化 및特性化는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多樣하고도特性화된資源과資源을有機的으로結合시켜 서로의 연관성을 갖도록 함으로써觀光客에게 생생하게 어필될 수 있는方法, 즉觀光資源의活性化의方案을講究한다는 것은觀光濟州의將來를 위해서必要的 일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階層의觀光客들의要求를滿足시킬 수가 있으며, 이들의多樣한觀光動機를充足시킬 수 있는觀光資源의存在야말로 무엇보다도 먼저考慮되어야 할課題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는觀光開發이 주로觀光事業者를爲주로 한, 다시 말하면觀光客의嗜好와는 아랑곳없이推進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濟州道の 가장特性的인 것, 다시 말하면「濟州島의」인 것을 보려고 상당한期待를 품고 왔던觀光客들은 하루가 지나면 곧 돌아가고 싶어할 정도로誘引力이 약한 것이現濟州觀光의實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觀光資源의開發은濟州道の特性을最大限 살리면서 어떻게觀光客들의要求條件에副應해야 할 것이냐가 가장重要的問題로 삼아야 할 것이다. 例컨데, 自然的觀光資源의 경우에도橫斷道路와一周道路만을 따라變化없이劃一的으로案內하여서는 안되고山과草原과 바다를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도록 루우트를多樣化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이에人爲的資源을 끼워 넣어서觀光客으로 하여금 항상 새로운期待感을 갖고觀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各觀光資源에 인접한各種施設物에는 그 어느 것이나「濟州島의」인香臭를 느낄 수 있도록特性化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爲해서는 무엇보다도濟州를 찾는觀光客들의觀光動機에 대하여廣範圍한調査가 있어야 한다. 물론觀光客들의量的分析도重要的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와 함께考慮되어야 할事項은 어떠한部類의 사람이, 왜 여기를 찾아 왔고, 또 그들은 어떠한經路를 거쳐 왔으며, 또 이들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說得시켜야 하느냐에 큰比重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²⁾

그런데, 지금까지는觀光客들의觀光動機에 대한調査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며, 이 결과宿泊施設이 한 곳에만偏重된다거나, 또는歡樂만을爲주로 한施設들이 늘어나고 있는實情이다. 이것은 또濟州道の眞面目을 보고 싶어 찾아 온觀光客들에게는 많은失望을 안겨 주는要因도 되고 있는 것이다. 特히濟州道는慶州나 서울에 비하여造形文化財가 적고, 한번濟州道를 찾아 오려고 하면 많은費用(다른道에 비해서)을 들여야 한다. 더우기交通手段이全天候가 되려면, 아직도遙遠할 뿐만 아니라,觀光對象物 역시別로魅力을 끌지 못하고 있다면,

2) Michael Peters 「International Tourism」 1969, p. 114

C. Dewitt Coffman 「Marketing for a Full House」 1970, By Cornell University, Ithaca N. Y. p. 23

濟州道の 觀光事業은 앞으로 어느 時期에 가서 限界點에 부딪치게 되리라는 것도 豫測할 수 있다.

此際에, 濟州道가 갖고 있는 觀光資源의 魅力性을 再檢討하고, 補完되어야 할 資源은 무엇이며, 이들을 어떻게 有機的으로 關聯시켜서 觀光客들에게 내 보이느냐를 考察하고자 한다.

Ⅱ

Ⅱ. 1. 現代社會를 레이몽 아롱은 「産業社會」로 파악하고 있다. 産業社會에서는 「테크놀로지」의 發達로 大量生産과 大量消費가 이루어지고, 勞動時間이 短縮되면서 余暇現象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社會는 享樂的이고 頹廢的인 風潮로 물들고, 人間들은 끝없는 消費와 享樂으로 치달는다. 그러나 財貨는 人間들의 이와 같은 欲求를 無限定으로 充足시켜 주지는 않으며, 人間들은 心理的 欲求不滿과 挫折感과 疏外感으로 시달리게 마련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그는 都市 居住者—技術的 進歩에 依하여 만들어진 人工環境의 罪囚—의 경우에 대하여 어딘가 다른 곳에 孤獨과 自然과의 接觸을 찾아 工場과 事務所와 같은 전혀 非人間的인 아닌 社會關係를 찾아 헤메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例컨데 狩獵·낚시·캠핑 등도 이러한 欲求에서 나온 것으로서, 설령 이러한 欲求가 他人의 흉내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실한 欲求임에는 틀림없다고 보고 있다. 旅行은 그것이 여름의 별장으로 移住를 하는 旅行이든, 새로운 景致의 探訪이든, 一種의 逃避 내지는 다른 生活樣式을 體驗하는 機會를 뜻한다는 것이다.³⁾

以上과 같은 見解로서 現代人の 觀光欲求를 生活環境의 惡化에 따라 必然的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人間도 生物群의 一員으로서 生活環境이 人工物로 가득차면 그럴수록 自然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⁴⁾ 요컨대 觀光은 現代人の 必須的인 存在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現代人은 觀光을 통하여 무엇을 希求하며 무엇을 充足시키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Ⅱ. 2. 美國의 動機調査研究所 (Institute for Motivational Research)의 所長인 Ernest Dichter 博士가 1976年度 國際觀光세미나에서 發表한 論文에서 밝혀된 것을 보면, 現代人の 觀光動機를 다음의 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⁵⁾

1. 모험에 대한 자극(Encouragement for Adventure)
2. 새로운 自我를 發見하기 위해(The Discovery of a New Self)

3) 레이몽 아롱(權鎔大外 9人번역) 「現代의 社會」(Britannica Perspectives 3) 大字出版社, 1976. 10. pp. 222~223

4) 日本 內閣總理大臣諮問 第號 に対する 觀光政策審議會答申 「觀光의 現代의 意義와 其의 方向」 pp. 1~11

5) Robert W. McIntosh, 「Tourism; Principles, Practics, Philosophies」1972, pp. 62~67

3. 旅行後의 效果(The After-Effect of Travel)
4. 文化의 探究者로서(The New Traveller is a Cultural Adventure)
5. 偏見의 打破(Break down Prejudices)
9. 外國의 理解(How to See a Country)
7. 對話를 爲해(Travel is a Dialogue)
8. 새로운 哲學의 探究를 爲해(Travel A-Search for a New Philosophy)
9. 珍奇한 것을 찾기 爲해(Uniqueness)

以上과 같은 內容中에 특히 強調되고 있는 것을 살펴 보면,

人間은 冒險을 爲한 刺戟에서 觀光動機가 생겨난다고 한다. 초음속여객기가 出現하고부터는 먼 目標地까지도 迅速·安全하게 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現代人에게는 「接近容易 (accessibility)」라는 物理的 事實을 強調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安樂하다는 것을 確信시켜 주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重要한 것은 새로운 世界를 發見하게 된다는 期待感을 주라는 것이다. 旅行動機 誘發者 (The travel motivator)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變化에 대한 드릴과 즐거움을 받아 드리도록 고무하고 또 이를 초대하는 教育者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이른바 靜的 安全 (static security)과 動的 安全(dynamic security)사이를 망서려왔다. 그들은 永續性(Permanence)의 保護를 받으면서 이에 매달리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現代에 있어서는 不可能한 일이라는 것을 항상 發見하게 된다. 그러므로 動的 安全, 즉 變化의 積極的 受容만이 참된 安堵와 滿足を 주게 된다는 것이다.

旅行의 또하나의 重要動機는 좀더 깊은 領域에서 發見할 수가 있다. 旅行은 安樂한 日常生活의 틀에서 벗어남으로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들이 精神的 領域(The boundaries of the psyche)을 부수고 未知에서 自己의 可能性과 想像의 世界를 찾고 싶은 欲望에서 환각제를 시험하는 것과 같다. 괴테(Goethe)는 말하기를 旅行에는 두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物理的으로 새롭고 먼 世界를 發見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와 함께 더욱 重要視해야 할 것으로서 自己 自身 內部的 새로운 世界를 發見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어떤 形態의 旅行도 그것이 특히 外國인 경우에는 心理的으로 새로운 洞察, 즉 自身을 새로운 觀點에서 보게 된다. 어떤 點에서는 旅行은 술을 취한 것과 같다. 취했을 때, 우리는 가끔 또다른 自己의 한 面을 發見하고 놀라서 기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한다. 온전한 상태에서는 自身속에 이러한 要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現代의 젊은이는 이러한 未知의 世界를 찾고 싶은 欲望에서 前보다 더욱 好奇心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觀光事業者들은 이러한 欲求의 充足을 爲해서 새로운 世界의 發見과 冒險을 알맞게 계획하여 이를 約束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旅行廣告를 보면 廢墟·彫像·史蹟地에만 集中하고 있는 경우가 大部分이다. 그러나 旅行動機의 좀더 깊은 理由

를 찾는다면 그것은 未知의 自己發見인 것이다. 觀光客의 心理를 한마디로 熱狂(craziness)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말은 獨逸語로는 Verruckt(미친)와 같은 뜻으로서, 결국 現在의 「나」라는 데서 離脫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 旅行은 一時的 狂氣의 즐거운 狀態 (a pleasant form of temporary insanity)이다.

한편, 大部分의 觀光客들이 그 訪問地에서 찾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는 唯一한 것, 珍奇한 것들이다. 觀光客을 가장 失望시키는 것의 하나는 그 訪問地가 다른 곳과 別 차이가 없다는 것을 親知에게 말하게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旅行動機 誘發者가 廣告에서 提供되어야 할 가장 重要한 것의 하나가 珍奇한 것을 알리는 것이다.

旅行經驗이 많은 사람들은 外國을 旅行하는 동안에 더위·추위·파리·모기 기타 많은 不便한 일들을 當한다. 그러나 그러한 旅行의 참된 價値는 歸鄉한 後에야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때는 사소한 不快한 일들은 벌써 잊어 버린다. 사실, 成功의인 旅行이란 外國에서 보낸 期間뿐만이 아니라 歸鄉後 無料로 받은 效果로서 判斷해야 한다. 「人生設計(life budgeting)」를 할 때, 우리는 그릇된 尺度를 使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距離」를 말할 때, 心理的 側面的 「距離」라는 用語에 익숙하지 못하고 地理的 面에서의 마일과 飛行時間에 더 깊은 印象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人生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살아 온 날, 週, 年으로 재고 있다. 같은 職에 아무 變化없이 20年 동안 꼭 같은 일을 되풀이한 사람이, 꼭 2週間에 많은 刺戟的인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그의 나머지의 生涯와 맞먹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찬가지로 2週의 休暇는 어느 個人에게는 그의 一生과 같은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觀光動機 誘發者는 이 旅行後의 效果, 즉 훌륭한 旅行의 剩餘價値 (the surplus value)를 觀光하려는 者에게 아르게 주어야 한다.

旅行後의 回想이야 말로 全旅行經驗의 重要한 局面을 차지하게 된다. 집에 돌아와서 親知나 職場의 同僚에게 自己 經驗을 이야기한다. 물론 이 때의 追憶하는 事件들은 實際로 있었던 일과는 꼭 一致하지는 않는다. 낚아 올렸던 물고기가 實際로 잡았던 것보다 더 크게 誇張되기도 하고, 모기들이 더 극성부렀다고도 할 수 있고, 캠핑이 아주 原始的이었다고 擴大하여 말할 수도 있다. 이 回想의 段階에서는 돈이 支拂될 필요도 없고, 時間이 促迫하지도 않다. 이 段階가 가장 重要한 것으로서, 다음의 體驗을 위한 時間과 性格을 決定하는 重要한 契機가 될 것이다.⁶⁾

Ⅱ. 3.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觀光은 現代人에게 없어서는 안될 存在가 되어 있고, 그것은 人工物이 아닌 自然에 對한 希求로서 나타나서, 異國의 새로운 風物에 接하여 새로운 自我를 發見하며, 旅行後에는 一生의 重要한 體驗이 되어 다음의 體驗의 性格을 決定하는 契機가

6) Marion Clawson,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Third Edition) pp. 448~449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濟州道를 찾는 觀光客은 濟州의 어떤 資源에 이끌려 있으며, 이들 資源에 대한 印象 내지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고, 무엇이 오랜 回想을 통하여 追憶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資料는 濟州道에 대한 旅行記를 통하여 考察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도 限定된 資料에서 발췌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濟州道廳에서 發刊된 「濟州道」誌는 1962年 2月 부터 시작하여 1976년까지 모두 70號가 나왔고, 이 가운데, 旅行記 또는 濟州旅行에 대한 것을 隨筆形式으로 收錄되어 있는 것 등을 합하여 59篇을 參考할 수 있었다. 參考한 資料는 다음과 같다.”

1. 神秘하고 雄壯한 땅...崔貞熙 (2) P. 100
2. 草原의 빛...金光涉 (2) P. 103
3. 푸른 意欲...孫素熙 (2) P. 105
4. 勤勞의 女神像...鄭漢淑 (4) P. 142
5. 風多情...鄭漢模 (4) P. 144
6. 石多의 表情...咸東鮮 (4) P. 146
7. 三多島 通信...崔貞熙 (4) P. 136
8. 濟州道의 自然美...任直淳 (5) P. 156
9. 濟州道의 民俗學 展望 (座談) (5) P. 156
10. 西埠頭...李丙皓 (5) P. 175
11. 觀光과 漢拏山...申亮湜 (6) P. 86
12. 다량쉬오름...金大炫 (6) P. 158
13. 잊을 수 없는 風光·人情...李鍾桓 (7) P. 120
14. 濟州島의 女性美...鄭忠良 (7) P. 123
15. 積雪期 漢拏山과 그 偉容...林爽濟 (7) P. 129
16. 耽羅의 印象...李重憲 (10) P. 24
17. 耽羅 三王國 頌歌...高 銀 (10) P. 100
18. 물방앗간과 아낙네 (濟州道의 特色)...趙娥英 (10) P. 167
19. 바다의 藝術...方根澤 (11) P. 174
20. 觀光과 濟州島...金璋濟 (12) P. 119
21. 들무덤과 月梅...鄭麟之 (15) P. 167

7) 앞에 있는 번호는 篇數의 合計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題目 다음의 括弧 안에 있는 數字는 「濟州道」誌의 號數를 가리킨다. 이 旅行記中에는 濟州道 出身의 筆者가 몇몇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他鄕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고향을 訪問하고 아주 새로운 눈으로 濟州道를 觀察하고 있으므로, 이들도 함께 觀光客의 範疇에 포함시킨다고 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22. 濟州道는 樂園이 된다...許承詔 (18) P. 90
23. 耽羅別曲...浪承萬 (20) P. 174
24. 故鄉에 돌아와서...張泰彥 (21) P. 174
25. 序章的 濟州開發論...玄敬大 (29) P. 29
26. 耽羅에 부치는 萊信의 季節風...權逸松 (31) P. 264
27. 樂園과 失樂園...朴龍植 (31) P. 272
28. 漢拏山 有感...林夕影 (31) P. 279
29. 四月의 漢拏山...鄭璣 (33) P. 120
30. 峻巖한 自然景...大矢邦宜 (33) P. 126
31. 絶勝과 瓦謠에 잠긴 고장...李孝祥 (33) P. 116
32. 異國의인 景觀의 꿈나라...趙永植 (33) P. 111
33. 三多의 風物·잔잔한 人心...鄭飛石 (33) P. 116
34. 다시 찾아온 濟州...裴振尊 (33) P. 133
35. 濟州道 紀行...李光宰 (33) P. 205
36. 傳說과 神祕의 고장...李應百 (34) P. 235
37. 浪漫에 묻히여...金景愛 (35) P. 235
38. 옛날의 流配地는 傳說에 묻혀...文柄尊 (36) P. 128
39. 禮儀바른 觀光地의 住民...李喆源 (36) P. 133
40. 조국의 화려강산 좋을시구...주영하 (39) P. 233
41. 漢拏遊記...송민호 (39) P. 228
42. 女多의 섬에서 받은 女人像...박진학 (40) P. 165
43. 女多의 섬에서 받은 女人像...아셈·보우 (40) P. 174
44. 거센 해풍속, 따슨 人情...지삼환 (40) P. 210
45. 한라의 유구한 풍자가...오세백 (40) P. 216
46. 강물 위에 던진 빵이...길성운 (40) P. 216
47. 허니문 하우스에서...문숙영 (40) P. 221
48. K의 추억과 제주도...정충량 (40) P. 237
49. 카나가 피는 해변길...임동권 (40) P. 241
50. 섬이 좋아 섬에서...李勝羽 (40) P. 244
51. 주황색 굴밭 내음...임석영 (41) P. 80
52. 어느 조난...고정기 (42) P. 180
53. 속·탐라연가...남승만 (42) P. 232
53. 뜨거운 이웃과 승공하는 이웃...야마오카·다케오 (44) P. 142
55. 내가 듣고 본 제주도 관광...마바라·시달 (50) P. 165
56. 고향처럼 느껴지는 고장...권혜경 (56) P. 165

8 는 문 집

- 57. 내가 본 제주도...안호상 (61) P. 158
- 58. 牧歌的인 保養地...이네다·기꾸다로 (61) P. 162
- 59. 仙女마을 같은 海村...金泰俊 (65) P. 108

以上の 作品에 대하여 筆者들이 感動的으로 받은 對象物을 하나씩 체크하여 이를 類型化하고 이 類型화된 對象物이 言及될 때마다 1件으로 취급하여 總體的으로 그 頻度를 調査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作品에서는 하나의 對象物에 대하여 여러번 言及되더라도 그것을 一件으로 취급하였다. 여기서 感動的으로 받은 對象物이라 함은 어떤 資源에 대한 表現中, 「...보니 神秘로웠다」, 「感銘깊었다」, 「아름다웠다」, 「~에 魅了되었다」, 「그야말로~와 같았다」, 「~을 보니 鄉愁를 느낀다」, 「이루 形言할 수 없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特異한 것이었다」등으로 表現된 것을 採取하였다. 따라서 「~해야 좋을 것 같다」, 「~해야 한다」 등의 價値判斷이나 어떤 當爲性을 主張하는 것, 기타 「特異하지만 좋지 않다」라든가, 또는 그 表現이 感動을 받은 것인지, 또는 單純한 記述인지 曖昧한 것과, 그저 淡淡하게 記述된 것은 省略하여 頻度에서 除外시켰다.

觀光對象物에 대하여 一般的으로 指示된 것과, 具體的으로 指示된 것으로 나누고, 具體的으로 指示된 것은 便宜上 行政單位로 表示하였다. 그리고 漢拏山의 경우에는, 이 山 속에 백록담·영실기암·原始林 등이 포함되고 있어서 이것을 전부 「漢拏山」이라는 범위 속에 넣어서 계산하였다.

一般的 對象物

	한라산	조원	바다	식물	生活相	傳說	三 多			기	타
							女	들	바람		
件數	53	21	32	31	56	11	27	11	3	수렵 4	음식 5

具體的인 對象物

行政單位	輪林	濟州市	舊左	安德	中文	西歸	城山
	협재굴 1	용두암 4	사굴 4	안덕계곡 3	천제연 9	천지연 9	일출봉 3
	백사장 2	삼성혈 3	만장굴 2	산방산 2		경방폭포 8	
		용연 2	비자림 4			기타 7	
		기타 5	기타 1				
件數(計)	3	14	11	5	9	24	3

以上の 對象物을 보면, 頻도가 많은 것은 濟州道の 「生活相」에 대한 印象으로서 56件이 되며 三多의 項目에 들어간 「女」역시 生活相에 같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⁸⁾, 이것을 합치면 83件으로 가장 많은 頻度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漢拏山 53件, 바다 32件 植物 31件, 草原 21件, 傳說 11件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具體的 對象物로서 歎賞을 받고 있는 것은 西歸浦에 散存한 觀光資源으로서 천지연·정방폭포, 기타 해변의 景觀등으로서 24件, 그 다음엔 濟州市 所在의 龍頭岩·삼성혈 등을 합쳐 14件 中文 천제연 9件의 順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보통 觀光資源을 自然的 觀光資源과 人文的 觀光資源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위에서 열거한 對象物을 다시 自然的 觀光資源과 人文的 觀光資源으로 分類하여 그 件數를 합쳐 보면 自然的 觀光資源은 216件, 人文的 觀光資源은 107件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觀光客들은 人文的인 觀光資源보다 自然的 觀光資源에 더 魅力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그 어떤 對象物에 대한 魅力의 深度를 頻度の 多少에 따라 正確히 評價할 수는 없지만, 濟州道の 魅力은 결국 自然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濟州道の 資源性은 人文資源보다 自然資源이 主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主要 觀光資源으로서 人文資源인 文化財와 自然景觀이 主가 되고 있다. 서울과 慶州가 文化財 集中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면, 濟州의 경우는 文化財보다는 自然景觀에 보다 그 資源性이 높기 評價되는 것은 上記와 같은 調査에서도 알 수가 있다. 1976年末 現在 總 1,397點의 指定文化財中에 濟州道는 國寶級은 全無이고, 寶物이 1個所, 史蹟 2個所, 天然記念物 14個所가 있는데, 이 天然記念物이 造形文化財에 비하여 많은 點도 결국 天然資源性이 풍부함을 立證하는 것이다.

Ⅱ.4. 以上の 分析에서 濟州道の 觀光資源이 갖는 魅力의 順位를 살펴 보았다. 그러면 觀光客들은 이 資源이 갖는 어떠한 特性에서 魅力을 느끼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個個의 資源을 보고 어떠한 印象 내지는 感動을 받고 있는가를 筆者들의 文脈을 通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1. 自然觀光資源

가. 漢拏山: 漢拏山은 「濟州道の 全部」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정도로 觀光客에게 강렬한 印象을 심어 주고 있다. 濟州道の 自然資源中 그 魅力의 頻도가 가장 많은 51件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를 立證하는 것이다. 특히 그 優美絶對의 산의 모습에 對하여 어떤 感動도 그 아름다움에 버금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賞讚되고 있는 것이다.⁹⁾ 그리고 漢拏山에는 다른 많은 觀光資源, 例컨대, 白鹿潭·王冠陵·耽羅溪谷·靈室奇岩·各種의 植物·原始林 등이 있어 그 魅

8) 女에 對한 印象이 아주 強하게 表現되고 또 頻도가 많아서 이것을 三多의 項目속에 分離하여 넣었다.

9) 高銀; 「濟州島」 (1976) p. 74

力을 더하고 있다. 그러므로 漢拏山에 대한 印象도 山 全體의 모습에서 시작하여 山을 構成하고 있는 部分的인 景觀에 이르기까지 두루 미치고 있다. 視野의 橫空間에 그대로 들어오는 漢拏山의 眞 모습에서 女性的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의 거룩함」, 「한없이 인자한 모습」, 「女王山脈中的 紅一點」 등으로 全體의 모습을 表現하고 있다. 특히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거나, 바다에서 우러러보는 山의 모습은 더할 수 없이 아름답다고 한다. 그리고 사시철을 따라 山의 색채가 變하는 모습, 濟州市나 西歸浦에서 보는 山의 모습이 달라짐에 대하여 「變化美」가 많고 山의 많은 傳說과 함께 神靈을 감동케 하는 山」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白鹿潭의 보금자리」, 「耽羅溪谷의 달밤」, 「개미등의 左右의 壯觀」, 「푸른 응단을 펼친 듯한 高原」, 「靈室의 景觀」, 「밤의 漢拏山의 고요」, 「하이·웨이의 路邊 風景」, 「주단 같이 덮은 갈대」, 「原始林」 등에 歎賞하고 있고, 漢拏山은 「韓國의 寶庫」라고도 表現하고 있다.

요컨대 漢拏山은 濟州道의 自然的인 觀光資源에서 最高的인 魅力物로서, 神靈을 감동케 하는 女王山으로 印象지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草原: 漢拏山 중턱에서 海岸線 가까이까지 이어지는 草原, 여기에서 放牧되는 家畜에 대하여 觀光客은 또 다른 感興을 갖고 있다. 近來에 와서는 이 草原을 利用하여 大的인 企業으로서 큰 牧場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觀光客은 이 人爲的인 것이 섞인 牧場보다는 그대로 原始的인 草原에 더 魅力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表現을 보면, 「西都活劇의 平原처럼 광활한 草原」, 「은통 푸른 草原」, 「언제나 푸른 들」, 「화사한 목초지」 「키를 넘는 초원지대」, 「영혼의 흐느낌 같은 억새꽃의 초원」, 「우마의 방목」, 「過客을 멈추게 하는 詩情」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옛부터 濟州道는 草原에서 放牧하는 牛馬들을 瀛州十景의 하나로 들고 있거니와, 觀光客에게 비치는 草原의 모습도 過客을 멈추게 하는 光활하고 화사한 草原으로 印象지우고 있으며 重要한 觀光資源의 하나로써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바다: 바다는 옛부터 濟州島를 絶海의 孤島로 만든 宿命的인 要因으로서 作用하여 왔다. 自古로 濟州島가 流刑地였다는 點이 이를 傍證한다. 그러나 이러한 宿命的인 要因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아직도 바다는 全天候의 交通을 渴求하는 點에서 多少의 障礙를 가져다 주는 것이긴 하지만, 바다야말로 濟州島의 大景觀을 이루는 主要한 要素가 되고 있다. 또한 바다는, 어디서나 항상 커다란 바다로서 바다가 濟州사람들에게 實在의 感情을 삭지 않게 충동을 일으킨다.¹⁰⁾

濟州의 바다는 觀光客에게 浪漫을 주는 바다로서 作用한다. 濟州의 觀光우우트가 海岸의 一周道를 주로 利用하고 있기 때문에 觀光客의 눈엔 항상 바다가 나타난다. 그래서 濟州觀光을 말할 때 漢拏山과 함께 바다를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觀光客의 눈에 비친 바다는 「넘쳐흐를 것 같은 바다」, 「바다의 나라」로 보이며, 바다빛은 「너무 푸르러 아득히 멀어지는」, 「코

10) 高銀; 前掲書 p. 298

발트色]의 바다로서, 「女性的」 또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하얀 白沙岬와 함께 아름다운 해변을 이루면서 바다는 넘쳐 흐르는 가슴겨운 浪漫의 바다로서 觀光客에게 強한 印象을 주고 있다.

라. 植物: 植物은 濟州의 大地를 덮고 있는 「옷」이다. 이러한 綠色의 自然은 단지 人間의 衣·食·住의 材料를 生産하고 酸素를 空中에 放出한다고 하는 機能的 面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安定된 環境의 持續, 生物社會의 均衡維持, 심증이 안나는 景觀의 形成 등, 가장 本質的인 面에서 人間社會에 寄與하고 있다.

機能적으로도 社會적으로도 모든 生物의 生存基盤이 되는 植物的 自然—푸르름의 自然—은 가장 價値가 높은 觀光對象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¹¹⁾

觀光客들이 濟州의 植物相에 關心을 갖고 있는 것도 當然한 일일 것이다. 겨울에도 푸르름의 自然을 볼 수 있다는 데에 感興이 돌아 나고 있다. 그래서 濟州를 「常綠의 나라」, 「綠神」 등으로 表現하면서 個個의 植物相에도 깊은 感動을 보인다. 즉, 갈매·수선·동백꽃·굴·유채·문주란·풍란·한란·왕벚꽃·피인애플·협죽도·철쭉·칸나 등, 그들의 關心은 5·16道路의 原始林은 물론 길가에 피어 있는 칸나나 수선화에 이르기까지 널리 미치고 있다.

마. 기타의 觀光對象物: 西歸浦의 天池淵·正房瀑布 등에 특히 關心이 깊고, 이 地方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海岸景觀에 歎賞을 보낸다. 西歸浦의 바다의 색채, 「遊客의 視線을 모으는 森島」, 「南國의 情緒」 등으로 西歸浦를 느끼고 있다. 中文의 天帝淵에 대하여는 그 「옥빛물」에 대하여 감탄하며 神秘를 남기에 충분하다고 하고 있다. 安德溪谷에 대하여는 岩壁이 섬세하게 사람이 조각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 분위기의 오묘함, 여기에 흘러내리는 맑은 물에 感動하고 있다. 山房山은 南美의 어떤 奇岩처럼 우람하게 서 있는 모습에서 「異國의」인 것을 느끼고 있다.

濟州市의 龍淵의 「파란 물」빛에 讚辭를 보내면서도, 龍頭岩에 대하여는 奇岩이라는 데에 興味를 가질 뿐, 다른 곳처럼 별다른 感興이 없다는 것은 周邊의 어슬픈 霧圍氣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그 외에 사라봉의 「탁트인 展望」을 잊지 못하고 있다.

구좌면의 사굴에 대하여는 「뱀 겁질」같은 窟內部의 찬 冷氣에 魅了되고 있고, 萬丈窟의 獨特한 모습을 神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자림의 「정숙」한 분위기에 감탄하고 있고 조용히 서 있는 巨木들을 보고, 그것들이 「풍겨 주는 歷史 같은 이야기」와 함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特有한 것」이라고 감탄하고 있다.

성삼면 所在의 日出峰에 대하여는 웅장하고 신비하여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것이라고 歎賞을 發하고 있다.

11) 日本 內閣總理大臣諮問 第2號 に対する觀光政策審議會答申, 前掲書 pp. 28~29

2. 人文觀光資源

가) 生活相 : 여기서 生活相이라고 함은 濟州사람들이 濟州島라고 하는 特殊한 自然環境 속에서 어떻게 適應하며 살아 왔고, 또 어떻게 삶의 意志를 불태우고 있는가 하는 動態的인 모습을 한마디로 이르는 것이다. 여기에는 濟州人의 모습, 人心, 衣·食·住를 비롯한 民俗 등의 人爲的인 것과, 濟州島의 自然과 人工이 加해진 밭담, 基地 村落風景 등과 옛부터 불려지는 民謠까지 포함된 概念이다.

濟州道民의 生活相이 觀光客에게 가장 興味를 끄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旅行한다는 것은 文化人類學의 한 典型이라고 할 수 있다.¹²⁾ 科學的으로 훈련 받은 人類學者라고 하더라도 局外者인 位置에서 낯서른 사람들의 儀式이나 慣習을 보고 오랫동안 滿尼해 하는 것이다. 濟州道를 여러번 찾아오는 觀光客들이 本道의 自然美에 대한 感嘆은 한 두번에 그치나, 濟州道 特有의 言語, 民俗과 生活文化의 變化相에 대하여는 항상 感懷를 새롭게 한다¹³⁾는 것도 人文的인 觀光資源이 그만큼 吸引力이 強하기 때문이다. 결국 觀光客, 특히 外國人 觀光客에 있어서는 訪問國의 人情, 風俗과 行事 등은 커다란 觀光魅力이 아닐 수 없다.¹⁴⁾

觀光客은 濟州道民의 「꿈많은 눈」을 갖고 있는 「늠름하고 순박한」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갈옷」을 입고, 「대패랭이」를 쓰고, 濟州 사투리를 쓰며, 「몽고마」를 물고 가는 「농부」에게 「異國的인 情緒感」을 느낀다. 길은 회색의 多孔質 玄武岩으로 이어지는 「밭담」, 다른 데서는 볼수 없는 아늑한 「草家」, 이 草家와 밭들이 어울려 調和를 이루고 있는 「村落의 風景」, 田園속에 간간히 나타나는 「墓地의 밭담」에 눈을 땔 수가 없는 것이다. 이 空間에 濟州人의 「勤勉」이 한결 돋보이고 있다. 특히 濟州人의 「따사롭고 잔잔한 人心」을 觀光客들은 결코 잊어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濟州道民의 恨이 담긴 「民謠」의 의미를 理解하려고 애쓴다.

한마디로 觀光客들은 濟州의 異國的 정취가 넘치는 生活相과 다사로운 人心에 깊은 印象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三多 : 濟州島 風物의 象徴的인 存在로서의 女·돌·바람에 대해서는 옛부터 外來人의 好奇心의 對象이 되어 왔다. 三多是 人間과 自然이 融和된 이 고장 固有의 特色을 나타낸다. 이 三多中에서도 특히 女에 대한 觀光客의 關心은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女多라는 것은 女子가 男子보다 數的으로 많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女子의 活動相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허벅을 지고 올라가는 女人」에 대하여 「仙女」와 같이 아름답게 보이면서도, 「勤勞의 象徴」처럼 느낀다. 특히 海女가 「휘파람 비슷한 怪音」을 내면서 行하는 「고달프고 치절한 作業」을

12) Robert W. McIntosh, Ibid, p. 64

13) 玄容觀 「濟州道民俗과 觀光」(濟州道誌 第30號) p. 81

14) 金震婁 「觀光學原論」(日新社) pp. 74~75

불 때에는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丈夫 이상의 석색한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 그리고 濟州女性의 美에 대하여는 「南方的인 情熱」과 「北方的인 血緣」이 섞인 「자임새 있고 탄력있는 美」를 지닌 「健康美」에 魅力을 갖고 있다.

돌 역시 濟州島의 獨特한 景觀을 形成하고 있다. 玄武岩이 빚어내는 景觀은 다른 곳과는 완전히 異質인 것으로서 自然이 만들어 낸 作品이다. 景觀은, 人間 天才가 만들어낸 最高의 傑 作品에 比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끝없는 가지 가지의 興味와 難題(challenge)를 提示한다. 景觀은 凝視하는 것 이상의, 理解하고 解釋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⁵⁾

觀光客이 돌에 대하여 느끼는 感興은 상당한 것이므로서, 「섬의 象徵」인 돌은, 바다와의 調和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한편, 多孔質의 玄武岩이 주는 돌의 意味는 바로 「時間과 存在의 謙虛」를 알려준다고 한다. 아마도 재빨리 지나치는 觀光客에는 돌은 그저 神奇한 것으로서 皮상적으로 보여 지고 있으나, 이를 깊게 觀察하는 觀光客에는 전혀 다른 意味를 주고 있는 것이다.

바람은 濟州島 自然의 特性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魅力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바람은 濟州島를 外部와 遮斷하는 要素로서 作用하여 왔으므로, 濟州가 갖고 있는 다른 魅力을 滅殺시키는 要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람」에 대한 感興도 극히 적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람을 「달래움, 걱정, 노여움」 등으로 表現하면서, 그 內面을 理解하려고 한다.

Ⅱ. 5. 以上에서 濟州島가 갖고 있는 魅力을 각 資源別로 類型化하여 分析하였지만, 濟州島를 다시 全體로서 파악하려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확실히 濟州島의 山·바다·草原은 그 나름대로의 個性과 魅力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중, 그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되는 景觀의 要素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山과 바다와 草原, 그리고 植物이 비슷한 頻度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것을 말해준다. 즉 山과 바다와 草原이 서로 따라 다니면서 調和를 이루고 있고, 이것은 다른 곳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異邦性과 包括性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그 生命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異邦性과 包括性은 濟州의 自然에 限한 것이 아니라, 人文資源, 즉 生活相에도 나타난다. 그것은 言語·民俗·民謠 등을 通하여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現代의 觀光客의 多樣한 欲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많은 資源들이 潛在하고 있다는 데에, 濟州道의 魅力은 큰 意味를 갖는다. 즉, 海水浴·낚시·狩獵·골프·登山 등의 많은 活動相의 要素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많은 要素들을 합쳐 濟州道 觀光資源의 包括性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最近에 와서 狩獵·낚시 등에 대한 外國人 觀光客의 關心은 높아가고 있고, 또, 신선한 海産物에 대한 味覺을 잊지 못하는 觀光客들이 있음도 注目해야 할 것이다.

15) Paul B. Sears 「The Living Landscape」 (1966) p. 180

I

Ⅰ. 1. 前章에서 濟州 觀光資源의 魅力은 自然資源을 中心으로 하고, 여기에 濟州道民의 生活相이 調和를 이룬 異邦性과 包括性에 있다고 하였으나, 現在 이것들이 올바르게 顯在化되어 觀光客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님은 明白하다. 그러므로 本章에서는 濟州의 觀光資源을 어떻게 活用하여 觀光客에게 어필될 수 있도록 하느냐, 즉 어떻게 活性化시킬 것인가를 다루고자 한다.

一般的으로, 많은 資源들의 올바른 綜合은 觀光客들에게 강한 興味를 誘發하여 그 觀光地가 계속적으로 存立할 수 있도록 하는 데 貢獻한다. 그러나 自然資源과 人文資源을 잘 綜合시킴으로써 얻는 강한 魅力을 무시하거나, 또는 나중에야 認定하게 된다면, 결국 調和가 없는 開發을 避할 수 없게 되고, 그 結果 모든 資源을 蝕히는 것이 된다.¹⁶⁾ 그러므로, 우선 濟州道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有形·無形의 모든 資源을 다시 한번 再調査하고, 이에 대한 資源과 資源間의 相關性 있는 結合을 圖謀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資源, 특히 自然的 資源인 경우에는 接近이 어렵거나, 너무 廣範圍하게 分散되어 있어서, 現在로서는 觀光客들의 興味를 誘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떤 觀光地가 너무 붐비고, 그 魅力이 退落되는 경우에는 相對적으로 다른 地域이 그 價値를 發揮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濟州道에 散在하고 있는 各種의 資源의 發掘은 특히 重要な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이 問題는 10年前 濟州道の 有志들에 의해 「濟州道와 觀光」이라는 座談會에서 提起되었고,¹⁷⁾ 여기에서 資源 發掘의 具體的 方法까지 論議되었다. 各面單位別로 自己 地方 固有의 것, 기타 자랑할 만한 資源들을 住民 스스로가 찾아내도록 하고, 이것을 保存·管理하면서 그 地方에 찾아 오는 外來客에게 내보일 수 있는 雰圍氣가 造成된다면, 이것처럼 훌륭한 方法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地方民은 自己 地方의 各種 資源에 대한 矜持를 갖게 되고, 그 地方의 特色도 살릴 수 있어, 이것들이 합쳐져서 多樣性を 갖게 된다. 따라서 最近에 道廳에서 벌리고 있는 民俗資料의 蒐集運動과 汎國民的인 自然保護運動과 並行하여 資源發掘에 대한 것도 推進하여야 한다. 이러한 潛在的 資源의 發掘과 함께 이를 顯在化시켜, 그 地域이 안고 있는 모든 魅力物을 뚜렷이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部類가 적당히 調整되어 있어야 한다.¹⁸⁾

Ⅰ. 2. 첫째로 文化的인 것, 例컨데 遺跡이나 考古學的으로 重要性이 있는 地域, 歷史的 建築的 및 記念物, 博物館, 近代文化, 政治·教育施設, 宗教 등이다. 여기서 考古學的 및 歷史的 遺産은 專門的 調査를 必要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태리나, 그리스, 페루등과 같은 거창

16) Michael Peters, Ibid p. 147

17) 濟州道誌 第30號 pp. 111~112

18) Michael Peters, Ibid pp. 148~150

한 遺跡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濟州道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考古學的으로나 歷史的으로 볼 만한 것들을 觀光루우트상에 기워 넣어, 이를 계속적이고도 생생한 이야기로 顯在化하고, 觀光客의 興味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方式으로 연결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나 페루의 遺跡地보다는 못할지라도 이에 가까운 興味를 誘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三姓穴과 三射石, 溫坪里海岸, 그리고 혼인지간의 關聯性을 맺어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를 만들고 이를 내보이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현재와 같이 三姓穴 하나만으로는 여기에 由來된 이야기를 생생하게 꾸밀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觀光客의 눈에도 感銘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最近에 浮上되기 시작한 古城 土城址는 高麗 元宗時 抗蒙將軍 金通精의 最後 抗戰場으로서 유명하다. 그러나 이 土城址만으로는 當時의 모든 狀況을 理解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興味도 주지 못한다. 金通精과 관련된 곳이 濟州道의 到處에 있을 것이며, 이를 調査하여 연결지를 필요가 있다.

또 濟州道 海岸에는 왜적의 侵入을 사전에 알리기 위하여 各要所에 烽燧臺를 設置한 곳들이 있다. 이 烽燧臺는 地方文化財로 指定되고 있는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를 觀光客에게 구경시킬 것이 아니라 옛날의 通信方法을 再現시키는 方法을 講究한다. 예컨대, 100名 以上の 團體觀光客에게는 近距離의 烽燧臺에서 서로 烽火를 올려 交信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國內外 觀光客에게 새로운 興味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와 같이 考古學的 또는 歷史的 遺跡地를 調査, 發掘하고, 이를 保護하면서 觀光客에게 顯示하는 것이 必要하다. 물론, 이것은 濟州道의 特性을 살릴 博物館內에 出版物로서 展示할 수도 있다. 그러나 觀光客들은 이러한 遺跡地를 바로 現地에서 보고 싶어 한다. 要컨데, 이러한 觀光對象을 어떤 資源 하나만으로 充分한 것인지, 또는 다른 資源과 結合되어야만 觀光의 魅力를 發揮할 것인지에 대한 獨自의인 評價를 할 것이 要求된다.

Ⅱ. 3. 둘째로, 傳統文化(Traditions)로서, 예컨대 祝祭, 藝術品과 工藝品, 民俗, 그 地方固有의 生活相과 慣習 등이다.

濟州道의 傳統文化를 살려가면서 이를 觀光客에게 어떻게 올바르게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濟州觀光이 안고 있는 가장 重要한 課題이며, 가장 時急한 일이다. 그 몇가지 理由는 前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濟州島의 生活文化 내지는 生活相에 대하여 觀光客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하나 看過할 수 없는 것은, 濟州道가 現代化의 물결에 依하여 空前의 大變革을 겪고 있어, 지금까지 지내 왔던 鄉土生活文化의 樣式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濟州를 찾는 觀光客의 目的은 막연한 채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濟州島」에 대한 이미지를 再確認하고 싶은 欲求에서 觀光行爲가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濟州島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견지하는 한편, 앞으로 계속하여 이미지를 具現한다는 것은 重要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現代는 메스·컴과 交通의 發達에 의하

여 세계는 時間的·空間的 規模가 작아지고 있고, 이로 因하여 世界의 文化는 同質性을 가져 오고 있다. 그리하여 民族 各者가 지나는 바 文化와 歷史와 運命의 共同은 날이 갈수록 그「圈」을 擴大하여 가고 있다. 즉 人類全體가 하나의 共同圈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人類文化는 民族文化로 具現되는 것이므로 民族文化 없는 世界文化는 空虛한 概念이 될 수밖에 없다.¹⁹⁾ 마찬가지로의 論理로 地方의 固有한 鄉土文化 없는 民族文化 역시 空虛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濟州道の 土着的인 文化가 大陸의 文化圈에 의해 지워지고 있다는 것은 觀光濟州의 앞날을 위해 가장 注目해야 할 것이다. 文化住宅 기타 生活改善을 위하여 草家지붕이 改良되고 있다는 事實, 옛날의 民具가 室內의 장식품으로 둔갑하거나 다른 用途로 變更되고 있는 일, 그리고 現在로서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얼마 없어 사라질 모든 美風을 어떻게 保存하여 계속하여 濟州道の 魅力을 살려갈 것인가하는 方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反映하여, 이미 濟州道綜合觀光開發計劃上에 民俗村指定, 民俗博物館의 建立 등 몇가지 計劃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計劃의 段階부터 철저한 調査와 綜合的인 對策이 講究되지 않았으므로, 實行되기도 전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우선, 現在의 古風 있는 마을을 民俗村으로 指定하여 生活民俗을 保存하려는 當局의 計劃은 文明의 利器를 누리려는 現地 住民의 希望과는 相馳되고 있다. 이것은 地域住民의 福祉問題와도 깊은 關聯을 맺게 되는 것이므로, 이 地域住民에게 옛날의 生活 그대로를 지켜 나가도록 強要할 수 없다. 根本的인 對策이 없는 限, 民俗村으로 指定된 古村은 곧 그 特色이 사라질 運命에 있는 것이다.

濟州道民의 鄉土文化와 生活相을 觀光客에게 어떻게 보여, 觀光客들의 欲求를 充足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道內 民俗學者들에 의해 진지하게 提起되어 왔다. 玄容駿 教授는 이 問題에 대하여 民俗의 本質에서 出發하면서도 「生活의 近代化」라는 問題와 關聯시켜 생각해야 한다고 前提하고, 現在의 古風 있는 마을을 指定하여 그대로 觀光客에 보여 준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는 點을 지적하고 있다. 즉 民俗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生活樣式을 前近代的으로 그대로 強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方案으로서 形態가 작고 간단한 民俗資料는 屋內博物館에 陣列하고, 民家나 방앗간 등 形態가 크고 說明이 어려운 것은 이를 移轉하여 野外博物館을 만들자는 것이다.²⁰⁾ 한편, 金榮敦教授는 傳來的 文化와 傳統을 保全하기 위한 對策을 네가지 側面에서 考察하고 있다. 즉 첫째는 民俗遺物 展示와 考察에 力點을 둔 世界 特有의 國立 또는 道立博物館을 建立한다는 것, 둘째는 人爲的 民俗村을 設立함으로써 濟州 特異의 民俗全般을 立體的으로 鳥瞰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셋째는 濟州道の 民俗이 可及的이면 그 原形에 가깝게 保全되어 있는 마을을 골라 이를 民俗村으로 指定·保護하는 것,

19) 趙芝薰, 「韓國文化史序說」(1974. 探求堂) p. 224

20) 玄容駿 前揭論文 pp. 81~89

네제는 大々의 調査事業을 통하여 煙滅 直前에 놓인 文化財 및 民俗資料를 記錄 保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가지를 可能한 다 遂行할 것을 強調하고 있다.²¹⁾

以上の 두가지의 見解가 큰 差異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關心은 특히 觀光의 側面에서 野外博物館 形態로 民家 등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移轉하여 새로운 民俗村, 예컨대 龍仁民俗村과 같은 形態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存續하고 있는 古村을 指定하여 이를 民俗村으로 하고 觀光資源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이다. 어느 方法을 취해도 問題는 있다. 前者의 方法에 대해서도 強點 못지 않게 弱點이 따른다. 즉 觀光客의 欲求는 가능한 濟州道의 生活相을 現地에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며, 模造品과 같은 印象을 없애기가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後者의 方法에 대해서도 특히 運營上의 問題, 例컨대 住民의 自發的인 協助를 얻을 수가 없고 前近代의 生活相을 어떻게 유지하도록 完成할 수 있겠느냐는 問題인 것이다. 이미 道에서는 三姓穴 近處에 民俗村 設立을 서두르고 있다. 이 民俗村과 함께 民俗野外展示場도 있다. 그러나 이 計劃의 規模로 보아서는 어디까지나 民俗博物館을 中心으로 하여 計劃된 것으로서, 垵地 千坪 정도의 넓이에 5채의 民家を 移建하는 것만으로는²²⁾ 우리가 意圖하는 所期의 目的, 즉 濟州道民의 生活相을 생생하게 보여서 觀光客의 欲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것은 못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方法을 摸索하지 않을 수 없다.

觀光資源으로서의 民俗村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要件을 充足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는 可能한 現地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濟州道의 生活相은 農耕뿐만 아니라 漁業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場所를 選擇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觀光루우트上 魅力的인 觀光資源이 없는 곳을 選擇하여 民俗村이 이를 代身하여 훌륭한 觀光資源으로서의 役割을 다할 수 있도록 配慮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첫째의 要件을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이 民俗村을 造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둘째의 要件을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海岸에 位置한 村落이 적당하다. 왜냐하면 海岸地方은 農耕과 漁業에 대한 生活相을 한 곳에서 보여 줄 수 있겠지만, 海岸에서 멀리 떨어진 村落의 경우는 濟州道民의 全體의 生活相을 보여 줄 수 없는 短點이 있다. 특히 濟州道라고 하면 곧 海女를 연상하게 되고, 또 宣傳物에도 이를 象徵化하고 있지만, 막상 濟州道에 와 보면 이들의 作業 모습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험한 파도와 싸우면서 作業하는 海女들의 모습이야말로 濟州道의 過去와 現在를 잇는 表象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도 海女の 作業 모습이 民俗觀光化되어 왔던 點을 생각하면 民俗村內에 海女作業場의 設置는 必須的인 存在가 아닐 수 없다.

세째의 要件을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民俗村이 濟州道의 가장 重要한 魅力物의 하나라

21) 金榮敦 「民俗村 指定保存에 따른 指定對象村落概要 및 保存方向」(油印物, 濟州道) pp. 5~11

22) 金星綜合設計公社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 및 公園計劃案」(1976) p. 14

고 하는 確信이 必要하다. 이러한 確信을 갖고, 民俗村을 가장 合理的으로 運營하는 方法까지 摸索될 수 있다면 觀光資源이 없는 곳에 이를 設置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觀光 루우트上 비교적 單調로움을 주는 곳, 예컨대 구좌면, 포선면, 남원면, 한경면, 대정읍 등의 어느 한 곳의 海岸村落을 民俗村의 對象地로 選定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重要的 것은 民俗村의 指定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運營方法이 가장 問題가 될 것이다. 運營方法은 우선 企業化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觀光客의 흥미를 자아내기 위해서는 濟州道의 아늑한 情緒를 주는 것가 마을의 차분한 분위기와 함께, 일단 觀光客이 民俗村에 들어서서 돌아갈 때까지 濟州道民의 生活相을 動的으로 劇化하여 보여 줄 必要가 있다.

Ⅲ.4. 세째로 아름다운 景致, 특히 뛰어난 全景, 自然美가 있는 地域, 國立公園, 植物園과 動物園, 海岸 및 山岳에 位置한 避暑地 등이 觀光地로서 분명히 나타내어져야 하는 것이다. 濟州道는 自然的인 觀光資源이 풍부한 것은 周知하는 바이고, 이러한 資源이 觀光客에게 강한 印象을 주어 온 것도 前章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나 問題는 濟州道가 갖고 있는 뛰어난 景致를 올바르게 變化있게 구경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觀光루우트가 극히 單調롭다는 것이다.

第二章에서 본 바와 같이, 濟州道 自然資源의 特色은 山과 바다와 草原의 調和美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調和美를 올바르게 感賞할 수 있기 爲해서는 어느 정도의 時間을 間隔으로 하여 山과 바다와 草原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도록 觀光루우트가 造成되어야 한다. 그런데, 現在의 觀光루우트는 5.16道路나 第2橫斷道路를 除外하면, 이러한 變化는 없다. 一周道路는 山도 草原도 바다도 올바르게 구경시키기에는 適合한 것이 못된다. 海岸에 散在한 觀光地와 마을과 마을을 잇는 道路로는 그렇게 暇점이 없으나 變化를 줄 수 있는 觀光루우트는 아닌 것이다. 결국 現在의 一周道路는 産業道路로서의 役割은 막대하게 큰 것이지만 觀光道路로서는 適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 一周道路를 버리고, 전혀 다른 道路를 利用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 道路를 中心으로 하되 海岸景觀이 좋은 곳은 바로 海邊을 낀 루우트를 만들고, 이 루우트를 얼마동안 달리다가 다시 草原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山 가까이 달리다가 다시 草原과 바다로 이끄는 變化가 必要한 것이다. 예컨대 濟州市에서 翰林 挾牙窟에 이르는 사이는 별다른 觀光資源이 없어 지루함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中山間道路를 통하여 애월면 光令一里所在의 光令溪谷과 황바두리城이 연결되고, 이 城에서 다시 海岸에 이르러 一周道路를 통하여 달리다가, 다시 애월면 남읍 所在의 錦山公園에 이르도록 誘導하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을 통하여 山과 中山間의 모습을 볼 수 있어 多樣化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落後되어 있는 中山間地域의 發展을 꾀할 수도 있는 것이다.

草原을 돋보이게 하는 方法으로서의 현재 5.16道路의 中間에서 조천면 교래리 所在의 녹산장

· 교동목장 등이 연결되고 여기에서 萬丈窟을 통하여 濟州市로 돌아오는 루우트를 完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草原을 觀光資源化할 경우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몇가지 事態에 대하여 注目하지 않으면 안될 일들이 있다. 즉 大規模의 牧場經營, 기타 遊休地 開發에 따라 濟州道の 獨特한 「역새 草原」이 사라질 運命에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지나친 開發과 産業化는 濟州 固有의 草原景觀을 變貌시키고 말 것이다. 물론 土地의 効率的인 活用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開發은 許容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觀光道路의 近處에의 지나친 開發은 抑制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地域은 水資源으로서, 깨끗한 공기의 安全地帶로서, 動物의 聖域으로서, 人間의 休息과 刺戟을 위한 場所로서, 특히 本來의 景觀美의 遺物로서의 몹을 担當한다.²³⁾ 따라서 이러한 地域의 保護와 養成을 위해서는 定期的인 풀베기, 火入, 放牧 등의 一定의 人爲的인 條件을 加할 必要가 있다.²⁴⁾

이 外에 海洋水族館, 動物園, 植物園 등 文化的 施設도 함께 考慮되어야 한다. 水族館은 특히 觀光客을 誘引할 수 있는 가장 重要한 資源의 하나이다. 특히 濟州道는 四面이 바다이며, 여기에 棲息하는 各種의 魚類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施設을 한다면, 觀光客의 知的 好奇心을 만끽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植物의 경우, 濟州道는 暖帶·溫帶·寒帶에 이르는 各種의 植物이 分布하고 있어 植物學者 등에게 많은 學問的 資料를 提供하고 있는데, 現在로서는 天然記念物로 指定된 植物조차 그 所在가 一般人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 5. 세계로 重要한 것은 各種 娛樂施設(Entertainment)로서, 우선 直接 參加할 수 있거나 또는 觀覽할 수 있는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公園, 映畫館 및 劇場, 밤의 遊興, 各種 料理 등이다.

濟州道の 경우, 觀光레크리에이션施設이 아주 貧弱하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觀光레크리에이션施設은 都市公園·어린이公園·골프場·캠핑場·狩獵場 등의 自然造成地區에 레크리에이션施設을 添加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施設은 近代社會의 急激한 發展에 따른 人口公害, 都市公害의 만연, 그리고 大衆觀光의 普及에 따른 大規模의 需要에 副應하기 위해서 새로이 造成된 人工的 資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施設에 대하여 우리 濟州道는 별로 關心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觀光客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道民을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施設이다. 最近에 濟州道の 「小郡邑機能化綜合計劃樹立을 爲한 研究」에서 公園 기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場을 設置하는 問題에 많은 比重을 기울이고 있다.²⁵⁾ 특히 76년에 와서 國家는 國民觀光에 대하여 많은 關心을 갖고 있고, 移動하는 國內 觀光客에 대하여 健全한 活動으로의 誘導를 꾀하고 있으므로, 此際에 觀光客은 물론이고 道民의 福祉를 위해서도 國民觀光地造成의 一環으로서 레크레

23) K. 서리키린갈(嚴圭白譯) 「生存을 위한 自然保存」(現代科學新書) pp. 78~79

24) 日本 內閣總理大臣務局 第9號 對する 第2次 答申 「望ましい觀光の發展のために」 p. 58

25) 濟州道 「小郡邑機能化綜合計劃樹立을 爲한 研究」(1977. 袖印物) 參照

이선을 위한 場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행히 濟州道는 이러한 場所를 마련할 수 있는 適地를 곳곳에 갖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싶다.

最近의 外國의 例를 살펴 보면, 레크레이션 위한 場으로서 遊休地 또는 荒蕪地를 利用한다든지,²⁶⁾ 또는 自然景觀이 아름답지 못한 地域, 이른바 第二流의 自然에 人工의 손을 加하여 第一流의 自然, 즉 아주 優秀한 自然을 만들고 있는 事例를 볼 수 있다.²⁷⁾ 특히 日本의 경우는 海洋型의 大規模 觀光레크레이션地區를 開發하고 있다. 그 內容을 보면, 都市周邊에서 얻을 수 없는 自然과 넓은 空間을 利用하여, 例컨대 海水浴·요트·보우트·水上스키·스키·乘馬·스케이트·캠프·피크닉 등을 위한 施設이나 空間이 그 中心이 되고, 여기에 各種의 休養 및 宿泊施設·植物園·水族館·展望台·海中展望台 등의 보기 위한 施設 등이 加해지고, 기타 駐車場·賣店 등 必要한 施設을 하고 있는 것이다.

觀光루우트上的 自然觀光資源을 背景으로 하여, 이와 가까운 곳에 레크레이션場을 만든다면, 보면서 즐길 수 있는 方向으로 誘導가 가능하며 自然破壞를 防止할 수도 있는 것이다. 美國 보잉會社의 調査를 보더라도, 濟州道의 自然景致를 背景으로 한 「活動相」에 좋은 評價를 내리고 있다.²⁸⁾ 즉 보트놀이·캠프·바다낚시·골프·하이킹·乘馬·사냥·登山·潛水·水泳·水上스키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觀光客으로 하여금 自然景致를 鑑賞시키는 데에 그치지않고, 이러한 動的 活動으로 誘導함으로써, 「移動」型的 觀光에서 「滞在」型的 觀光으로서 變化를 도모할 수 있고, 濟州道가 안고 있는 觀光資源은 한층 그 特性을 떠면서 多樣性을 갖게 되어 活性化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活動相에 대한 特色은 한마디로 休養目的이라 할 수 있고, 이 休養目的은 現代에 있어서 觀光客들의 切實한 要求이기도 한 것이다.

Ⅱ.6. 以上과 같이 濟州道의 觀光資源을 活性化하는 方案을 摸索하여 보았으나, 이것들이 綜合的·具體的인 試案이 되지 못하고 例示에 그친 感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試案의 提示는 좀더 多角的인 研究를 거쳐야 하겠으므로 現段階로서는 우선 그 基礎的 作業으로서 上記한 方向으로의 方案을 摸索하였을 뿐이다.

26) C. Frank Brockman 「Recreational Use of Wild Land」 pp. 85~106

27) 磯村英一編 「行政最近問答事典」(日本帝國地方行政學會)pp. 556~558

28) The Boeing Company 「韓國觀光開發調査」 pp. 3-15~3-16

—Summary—

Undeveloped Attractions of Jeju-do and Suggestions on How to Present them to tourists

Seo Kyong-rim

Cheju is extremely fortunate in that she has assets so outstanding that the tourist industry can largely depend on. But, no combination of a number of assets is to create a strong appeal to secure a viable share of the market.

Especially, the combined appeal of a wide range of natural and created assets has been recognized too late to prevent uncoordinated development, thus spoiling these assets. It is important to define all the attractions Cheju may possess and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be appropriate.

1. Cultural

- a. Historical buildings and monuments.
- b. Places of historical significance.

2. Traditions

- a. Halla festivals.
- b. Arts and handicrafts.
- c. Folk song.
- d. Folklore museums.
- e. Folklore village to present native life and customs to the tourists.

3. Scenic

- a. Outstanding panoramas and areas of natural beauty.
- b. Mt. Halla National Park.
- c. Wild life.
- d. Flora and fauna.
- e. Beach resorts.
- f. Mountain resorts.

4. Entertainments.

- a. Participation in and/or viewing sports.
- b. Amusement and recreation parks.
- c. Zoos and oceanariums.
- d. Night-life.
- e. Cuisine.

5. Unique attractions of Cheju Island.

According to these categories, it is important to present natural and created assets to tourists in a way that would sustain the interest of the visitor.